부모교육연구 제1권 1호
2004. 6. Vol. 1 No. 1 pp. 5-23

기독교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신앙생활 평가도구개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Development of Assesment Scale of 'Child's Religious Life' Whose Parents Perceive in Christian Home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한 영 진*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ial Course Han, Young Jin

Abstract

Parents have a primary responsibility that have helped their children's 'faith' and 'life' in christian home. But many christian home leave 'religious education' to 'Sunday School'. Thereby, parents in christian home don't make sure whether the 'religious life' of their children is balanced or not. This work that clarify what is the specific branch in 'religious life' is an approach for parenting in 'religious life'. So, this researcher clear up the specific branch of 'religious life' through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hild's 'religious life' is consist of 5 constructs. They are elements of 'social', 'moral', 'church', 'daily habit', 'psychology'. This instrument will guide practical use in 'christian home' that parents estimate their child's 'religious life' to consistent between 'faith' and 'life'.

주요어(Key Words): 기독교가정(christian home), 신앙생활(religious life)

* 교신저자 : 한영진(E-mail: edufare2000@hanmail.net)

Ⅰ. 서 론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며, 기독교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어 그의 신앙과 사랑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고 볼 때, 기독교 가정은 양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기독교신자이고 자녀를 성경의 원리에 따라 기르고자하는 양육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독교가정의 자녀는 삶의 목표와 가치와 순간순간의 행동선택에 있어 일반가정에서 양육된 자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 기대가 된다. 손윤경(1998: 52)은 이에 대해 기독교가정이 갖는 고유한 특징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로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 선교 100여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교회와 신자의 증가로 기독교신자 천만 명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적이며(윤동주, 2001) 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기독교를 설립이념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기관과 병원 등 이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삶의 현장에 기독교신앙과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관계'와 '만남'을 통해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는 보이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주로 교회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회학교가 일요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번의 만남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교육을 교회학교에만 의존하기는 상당히 미흡할뿐더러 앎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 본래의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과 삶을 중심으로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논리이며(기독교신문, 2004. 5, 2일자) 이것은 일반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애 초기의 가정은 아동에게 있어 교육의 장(場)으로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기독교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나라 개신교의 양대(兩大)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2000)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하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사회와 자연 및 세계와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헌신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깨

달아 아는 과정',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을 이웃, 사회, 자연, 세계',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등은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기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가정교육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기독교적 양육(Christian Nurture)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교육론을 펼친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은 인간이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에 서서 '가정'을 하나의 장(場)으로 보아 영적 성장과 가능성을 보장받는 곳으로 보았다. 그는 기독교가정이야말로 신앙생활과 신앙교육의 중심지로 보고 가족구성원간에 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부모의 생각과 감정과 성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가정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기독교가정의 자녀들은 종교적·정신적 가치보다 출세지향적이고 물질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가치관과 태도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박 종, 2002; 송성자, 1989; 은준관, 1988; 진미경, 2001).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기독교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김용호, 1986; 이석영, 1998; 조명숙, 1997). 심지어는 십계명중 제2계명인 우상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조차 자녀가 대입(大入)을 앞두었거나 학원수강과 겹치게 되면 일부 기독교가정에서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심상미, 1995). 이처럼, 신앙교육의 장(場)이었던 가정이 그 기능을 잃고 부모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며 기독교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몇가지 요인들을 명현정(2001)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신앙교육 부재와 그에 대한 인식의 부족, 둘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한 오해로 부모의 권위있는 지도가 자녀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방해한다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맹신, 셋째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구성원간에 결속력이 약해짐으로 부모가 바른 성장모델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그 이유다.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거의 교회학교에 떠맡김으로서 부모가 가정에서 모델이 되어야할 신앙생활의 지침들이 제시된 바가 없고 자녀의 생활환경을 통해 드러나는 생각과 행동이 과연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준거들이 없는 것이 기독교가정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자녀의 신앙생활영역에서 잘하는 점을 계속 격려해주고 취약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접근으로 보완해 주어 자녀로 하여금 신앙에 관한 앎과 삶이 일치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는 기독교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된 것이 없고, 신앙성숙과 관련하여 청소년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척도들도 그 원 출처는 외국의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들이며(김연진, 1991 외; 박기언, 1996; 박병윤, 2001; 석창훈, 2001)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차이를 감안할 때 과연 타당도에 문제가 없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발달단계의 특성상 가소성을 지닌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회심리학자 에릭슨(Erikson)의 주장대로 근면성을 길러 유능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형성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신앙생활면에서 앎과 삶의 일치가 습관화되도록 도와주어 신앙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기독교가정의 부모가 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가정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신앙생활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기독교가정에서 자녀의 균형잡힌 신앙생활의 구체적 영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기독교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가정의 성경적 이해

부모-자녀관계는 십계명에서 보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제5계명)으로 명시하였다. 그만큼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한 셈이다. 또한,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는 기독교가정에서 부모-자녀가 서로 사랑과 공경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며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이소희(1999)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부모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여겨서도 안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양육해서도 안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양육해야 한다고 기독교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말한바 있다.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은혜계약의 상속자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기독교신자로서 그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그 자녀들은 그 가르침대로 따를 것이 요구된다(재인용, Bushnel, 1967).

기독교가정이 자녀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목표로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은 지도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해놓았어도 지도방법이 나쁘면 신앙적인 성장은 저해받을 수 있다. 부쉬넬은 기독교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적·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열광적인 신앙, 엄격한 교리주의 같은 획일주의, 무조건 부정하기, 강제적인 행동통제, 지나친 절대주의, 율법주의적인 행동통제, 의미없는 성경암송 등을 들고 있다(은준관, 2003: 218-223).

Mckenzie(1982)는 성인 기독교교육과 관련하여 체제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영역을 종교적영역, 사회적영역, 도덕적영역, 지적영역, 심리적영역 이렇게 다섯으로 구분하였다. 이 다섯 영역은 성인기독교교육을 할 때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구성의 준거가 되며 이것은 아동에게도 그 모형이 적용 가능하리라고 본다.

기독교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가정교육을 통해 모델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한다. 이것은 기독교가정이 목표로 하는 '하나님께의 영광'에 가장 우선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가정에서의 신앙생활교육평가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부모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자녀지도에 있어 주력점을 둘 것이나 격려해줄 요소가 무엇인지, 지원해줄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 도와줄 수 있다.

2. 신앙생활관련 평가도구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의 신앙은 그가 의지하는 절대자와의 관계와 개인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만큼 그 모든 변인을 고려한 연구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하거나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외에, 심리적인 문제나 도덕적문제, 기타 생활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죽음 후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면에서는 교육과정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확인과정으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는 다시 새로운 출발에로 피드백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는 그 방법면에서 점점 세련되어지고 타당성, 신뢰성이 보강되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있어야 자녀의 수준에 적합한 가정교육 및 신앙생활안내를 할 수 있

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신앙생활관련 척도에 대해 석창훈(2001: 14)은 종교심리학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종교성측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바 있다. 측정내용은 종교적 신념과 실천, 종교적 태도, 종교적 성향, 종교적 성숙과 발달, 종교적 관여, 종교적 체험, 종교와 도덕성, 종교와 개인의 성격, 종교적 문제해결과 극복, 영성과 신비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죽음과 사후세계, 제도적 종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주제 들이다. Allport와 Ross가 1967년에 종교성을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교성향검사' ROS (Religious Orientation Scale)를 개발한 이래,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Gorsuch와 Venable은 20문항(내향성 척도 9문항, 외향성 척도 11문항)으로 종교성을 측정하는 표준화도구 'The Age Universal I-E Scale'을 개발하였고 Malony(1995)는 Allport의 종교성향 검사가 '내용'보다는 '의식(儀式)'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성격특성과 종교적 성숙을 비교한 Malony(1995)는 종교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의 성격특성 가운데 지력(智力), 자발성, 상상력 등이 뛰어났고 불안과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적 성숙이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바 있다. Altemeyer와 Hunsberger(재인용, 1992)는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Religious Fundamental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아니라 모든 종교에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Goursch와 Ventis(재인용, 1983)는 ROS를 보편화시킨 '연령초월 종교 성향 검사(Age-Universal I-O Religious Orientation)를 개발한 바 있다. Ellison(1998)은 인간의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영적차원을 고려하여 개신교신자들의 신앙심을 측정하기 위해 SWI(Spiritual Well-being Inventory)를 개발하였으며 그 외에도 QUEST(Altemeyer & Hunsberger, 1992), DOUBTS(Altemeyer, 1988) 등이 있다. 특히, Argue(재인용, 1999)가 종교적 성숙의 차이를 밝히고자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동안의 종단연구로 카톨릭청년과 개신교청년간의 신앙성숙의 차이를 밝힌 것은 괄목할만한 발전이다. 종교성에 있어 성차(性差)나 연령의 차(差)는 연구자들간에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석창훈, 2001: 61-62).

한편, 국내의 연구를 보면 박영신(1983)은 종교성을 본질적 차원과 형식적 차원의 두차원으로 분류한 척도를 개발하여 기독교신자인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수준과 종교성의 관계가 상호긍정적인 관계있음을 밝혀내었고, 서영태(2001)는 신앙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앙생활에 대한 의례적인 참여(ritual commitment)를 알아보는 것으로 예배생활, 말씀과 기도생활, 헌금생활, 사회생활의 네 요소로 구성된 신앙생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수준과 신앙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바있다. 강필원(2001)은 이 척도를 노년기의 신앙심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바 있는데 설문형식에 있어 단순한 기초조사형식이고 의례적인 참여의 정도를 알아보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영태(2001)는 신앙생활측정의 표준화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바 있다. 양덕희(1998)는 선행연구(양광자, 1990; 한홍순, 1989)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기초로 신앙도를 검사하는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김수연(1987)이 외국(Ainlay와 Smith)의 종교참여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된 하위척도는 일반참여도, 개인참여도, 공적참여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석봉과 이성배(1996)는 Allport와 Ross의 ROS를 번안하여 '한국판 종교성향검사'를 개발하여 각 개인의 종교적 성향을 측정하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석창훈(2001: 67)의 RSI는 Malony(1995)의 종교생활척도를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형척도(47문항)로서 8개의 하위구인(개방성, 관계성, 방향성, 수용성, 윤리성, 자각성, 참여성, 친교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대상이 대학생이었고 천주교와 개신교신자를 구분하지 않아서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박병윤(2001)은 신앙생활을 정의, 인지, 의지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인지차원의 문항은 주로 기독교교리 및 가치를 어느 정도 아는가를 측정하고, 의지차원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규범과 사회규칙 및 규율을 잘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가르침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국내외의 기독교가정 및 기독교신자의 종교성·신앙생활과 관련된 척도를 살펴보았는데 종교성의 구성개념, 종교적 성숙정도, 종교적 문제해결력 등이 중심주제이고 대상도 거의 성인이어서 아동의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도구는 따로 개발된 것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신앙생활의 구인을 밝혀내고 신앙생활평가를 위한 도구개발이 절실해지는 바다.

III. 연구방법

1. 대상 및 절차

1) 예비조사(Pilot Study)

기독교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독교가정의 초등

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 90명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42명, 그리고 68명의 대학생들에게 자유기술토록 하였다. 대학생을 포함시킨 것은 그들의 과거 아동기 때를 회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를 기대함이었다. 기독교가정에서 신앙과 생활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자유기술을 하도록 한 것을 참고로 하여 다양하게 나온 문항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내용을 정리하여 50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내용을 기독교신자로서 아동복지를 전공하는 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원급 일인(一人), 국어과 전공교수에게 내용타당을 점검받은 후 문항기술방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수정하여 32명의 부모에게 예비설문을 실시하였다(2003. 7. 20~7. 27). 그 결과 내적일관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하고 질문내용이 애매하게 이해된다는 문장을 재조정하여 46개의 문항으로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2003. 8. 3~2003. 8. 24). 척도구성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고 부정질문은 역코딩하였다. 본 설문에서 사용된 문항의 cronbach's a 계수는 .87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본 조사

(1) 자료수집 대상

본 설문의 대상은 기독교가정 부모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400명이며 그 중 설문분석에 합당한 219명이 최종분석 대상이었다. 성별, 연령, 신급, 신앙경력과 교회직분, 맞벌이유무, 교회규모 등이 고루 반영되었으며 설문에 성실히 응답을 한 최종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N	%
성별	부(남)	62	28.3
	모(여)	157	71.7
	계	219	100
나이	30대	81	37.0
	40대	116	53.0
	50대	22	10.0
	계	219	100
신급	초신자(학습이전)	10	4.6
	학습교인	7	3.2
	세례교인	202	92.2
	계	219	100

항목	구분	N	%
신앙생활햇수	1~5년	15	6.8
	6~10년	26	11.9
	11~16년	46	21.0
	16년 이상	132	60.3
	계	219	100
교회직분	평신도	22	10.0
	집사	166	75.8
	권사	20	9.1
	장로	3	1.4
	목사	6	2.7
	사모	2	0.9
	계	219	100
맞벌이	맞벌이	104	47.5
	맞벌이 아님	115	52.5
	계	219	100
소속교회규모	미자립	2	0.9
	소형	24	11.0
	중형	149	68.0
	대형	44	20.1
	계	219	100

(2) 자료수집 기간 및 수집방법

2003년 8월 3일부터 2003년 8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대상부모 선정은 지역별, 교회규모별로 고루 표집이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나 사례수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일날 교회에서 직접 만나서 설문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교회학교 아동 편에 가정으로 보내어 다음 주에 회수하기도 하였다. 400부를 배포하였으나 23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58%) 그 중에 누락항목이 있던 설문을 제외한 후 최종분석된 설문은 219부였다. 실시기간이 다소 길었던 이유는 교회학교의 특성상 아동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하는 과정과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최소 1주일로 시간간격이 길었기 때문이며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도 일주일만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설문을 분실했거나 되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다.

(3)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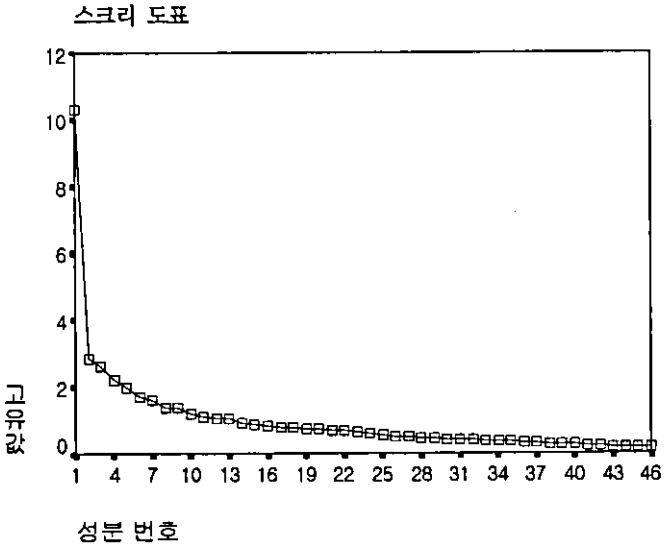
자료는 SPSS 1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과정을 거쳤다.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구성개념(construct)을 도출해내기 위한 경우에 수행하는 접근이다(양병화, 2002). 초기엔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분석(PCA)에 의해 직각회전, 사각회전을 번갈아 돌려보면서 고유값과 공통분(communality)을 추출하였고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살펴가면서 요인의 수를 조정해보는

과정을 통해 요인구조와 행렬을 보아 최종적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요인간 상관, 요인내 문항간의 상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이 좋은 최종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3) 분석결과

(1) 1단계

초기에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분석(PCA)에 의해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분행렬과 회전후의 성분행렬 및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하여보고 다시 5로 지정하여 분석과정을 거친 결과 3으로 지정하는 경우보다 5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설명력이 좋게 나타났다<그림 1 참고>.



<그림 1> 스크리 도표 상의 요인 추출

이어서 주성분분석(PCA)에 의해 Varimax회전으로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은 <표 2>와 같다. 또한 새로이 추출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다시 확인한 결과 3요인과 5요인이 신뢰도계수가 .6이하므로 다시 요인내에서 각각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두 문항을 제거하고 난 후의 최종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 3, 5요인의 괄호 안 숫자는 1차 신뢰도문항

하위요인	최종문항수	해 당 문 항	cronbach'α	
			1차	2차
1	10	13, 14, 39, 15, 18, 38, 40, 12, 41, 16	.84	.84
2	10	30, 31, 36, 33, 34, 29, 24, 35, 17, 44	.84	.84
3	7	10, 3, 8, 1, 2, 7, 9, (4)	.58	.77
4	7	23, 21, 25, 28, 19, 20, 22	.78	.72
5	6	46, 42, 43, 32, 45, 5, (37)	.54	.74

<표 3> 각 요인의 고유치, 설명변량 및 누적변량과 요인명(要因名)

요인 /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Eigenvalue	9.34	2.59	2.34	2.14	1.70
설명변량	23.84	6.47	5.86	5.34	4.23
누적변량	23.84	30.31	36.17	41.53	45.76
요인명	사회생활영역	도덕생활영역	신앙생활영역	일상습관영역	심리안정영역

<표 3>에서 보듯이 다섯 요인 모델의 전체 설명변량은 45.8%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최종모델로 선택하였다. 또한 신앙생활의 하위 영역으로 추출된 다섯 요인에 대해 각각 사회생활영역, 도덕생활영역, 교회생활영역, 일상습관영역, 심리안정영역으로 명명하였다.

(2) 2단계

초기 50문항에서 신뢰도검증결과 내적일관성에 문제를 보이는 4문항을 삭제하고 46문항으로 설문을 돌린 결과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별한 문항은 40개다. 문항 6개를 버린 이유는 요인추출과정에서 요인구조는 안정되었으나 각 요인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다른 요인에 걸쳐서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나거나 그 문항으로 인해 요인구조상에서 산뜻하지 않은 배열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고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최소문항으로 최대측정효과를 거두기 위한 과정에서다.

<표 4> 회전된 요인성분행렬

회전된 성분행렬 [a]

	성분				
	1	2	3	4	5
문13	.653	5.566E-02	.293	.132	-7.23E-02
문38	.641	8.686E-02	2.928E-02	.139	-7.65E-02
문14	.631	.167	9.362E-02	9.985E-02	3.545E-02
문18	.627	.288	1.414E-02	.171	-8.16E-02
문39	.617	.286	.141	.160	-.113
문40	.564	.221	.111	1.176E-02	-.143
문15	.563	5.801E-02	.137	-1.21E-02	-9.09E-03
문41	.501	.370	3.078E-02	.230	-.216
문16	.470	.420	.185	-.115	-.156
문12	.461	9.977E-02	.181	.149	2.164E-02
문36	5.874E-02	.688	.228	.165	-.143
문31	3.943E-03	.662	.213	.213	-4.70E-02
문30	.275	.652	3.694E-02	.331	5.404E-02
문33	.334	.624	8.655E-02	5.187E-02	-1.70E-02
문34	.197	.613	-1.57E-02	.216	-3.08E-02
문29	.198	.531	.192	.294	4.064E-02
문17	.375	.505	.135	-2.89E-02	-.113
문35	.328	.504	.204	.222	-.141
문24	.217	.493	1.792E-02	.361	3.402E-02
문44	.254	.410	2.227E-02	-.325	.286
문10	.184	-6.11E-02	.689	.135	-1.65E-02
문3	.115	.176	.680	-.102	2.805E-02
문8	2.040E-02	.210	.642	7.935E-02	-3.45E-02
문1	.360	4.701E-02	.639	6.764E-02	-6.91E-02
문2	.256	.155	.620	6.276E-02	-2.22E-02
문9	-3.31E-05	5.385E-02	.538	.159	-4.91E-02
문7	.150	9.352E-02	.532	.102	-.176
문21	.106	.245	5.151E-03	.620	-8.39E-02
문23	-8.60E-02	9.443E-02	.349	.612	4.160E-02
문25	.331	7.885E-02	7.249E-02	.536	8.266E-02
문28	.279	.248	.285	.507	-7.03E-02
문19	9.572E-02	.146	.356	.483	-7.94E-02
문22	.303	.121	9.297E-02	.480	-.227
문20	5.941E-02	.158	-3.38E-02	.468	-4.68E-02
문46	-1.73E-02	2.953E-03	-.112	-.158	.768
문42	-.163	-3.05E-02	-2.82E-02	8.968E-02	.694
문43	-8.49E-02	-7.45E-02	-.162	-.174	.646
문32	8.543E-02	-.236	.139	-4.83E-02	.597
문45	-.201	.164	-5.72E-02	-6.26E-03	.587
문5	-4.24E-02	-.299	-.269	.211	.38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40개와 각 요인별 부하량은 <표 4>에 제시된바와 같으며 최종 추출된 문항은 리커르트 척도 5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신앙과 생활의 일치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이는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최종 추출된 각 문항의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최초 50개 문항 중 최종문항으로 추출된 40문항의 내용

문항번호	질 문 내 용
	나의 자녀는?
12	동네 또는 학교 친구들과 폭넓게 사귐을 갖고 관계가 좋다.
13	학교생활을 즐겁게 잘 한다.
14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한다.
15	낯선 모임에 가도 적극적으로 잘 어울린다.
16	자기 맡은 책임을 다 한다.
18	가정에 찾아오시는 손님에게 친절히 대한다.
38	기분이 좋으면 표현을 한다(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
39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40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41	부모의 기분을 잘 살피고 즐겁게 해주려고 애쓴다.
17	정해진 약속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24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하다.
29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한다.
30	부모가 바쁠때 곁에서 잘 도와준다.
31	잘못한 일이 있을땐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33	부모가 아플때 위로하거나 실제로 도움이 되려고 애쓴다.
34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자리가 나면 웃어른에게 양보한다.
35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6	누가 보건 안보건 공공규칙을 잘 지킨다.
44	화가 나면 무슨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을 한다.
1	주일이 되면 즐겁게 교회에 간다.
2	예배시간엔 주의집중하여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3	교회행사나 수련회 등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7	식사기도를 스스로 잘 한다.
8	성경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한다.
9	1년에 한 명 이상은 전도를 한다.
10	집에서 혼자서도 찬송가를 잘 부른다.
19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20	환절기 질병(감기 등)에 잘 견딘다.
21	자기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쓴다.
22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한다.
23	책상에 앉은 자세가 항상 바르다.
25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28	부모님께 공손하게 존대말을 쓴다.
5	교회에 간다하고선 오락실에 가기도 한다.*
32	다른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을 더러 한다.*
42	심각하거나 우울한 표정을 지을때가 많다.*
43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45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표현을 가끔 한다.*
46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표는 역코딩 해당문항

(3)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문항개발 절차의 일부로서 일차적으로 개발된 문항을 표본에 시행하여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문항의 양호도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높이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강승호 외, 1996). 문항양호도의 준거로는 대체로 난이도 및 변별도를 보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들은 교육평가에서 흔히 제시되는 4지 선다형이 아니고 5점 리커르트척도인 관계로 난이도나 변별도를 기준으로 양호도를 측정하기는 애초부터 곤란한 점이 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40문항이 개발되기 전에 예비검사과정을 통해 문항자체의 기술(記述)상의 문제나 대상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 초기 50문항의 내적일관성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40문항이 남게 된 것이다. 이 40문항의 내적일관성(Chronbach's α)은 .87이어서 신뢰할만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문항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문항평균(Item Mean)은 3.64, 최소값(Minimum)은 1.32, 최대값(Maximum)은 4.40, 변량은 .52였다. 전체문항 중 편포를 보인 문항은 한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지나치게 유사한 반응을 보인 경우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편포를 보인 문항들은 응답자의 대상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모두 기독교가정의 부모들이었던 점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최종 추출된 문항의 요인별 묶임을 보아 몇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나 또는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게 그대로 두었다.

본 측정도구의 목적인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알아보는 평가의 기초도구인 측면에서 볼 때 선정된 문항들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6>은 문항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최종 40문항의 문항분석 내용

	Mean	Minimum	Maximum	Range	Maximum/Minimum	Variance
Item Means	3.6431	1.3211	4.4083	3.0872	3.3368	.5193

Ⅳ. 결론 및 논의

기독교가정의 아동이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 신앙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모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있는 종교생활척도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외국의 것을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도구는 따로 없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인이나 아동에게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동에 대해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된 모습은 '앎'과 '삶'의 불일치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성장과정에서도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갈등을 겪게 되어 정신건강에 오히려 해를 줄 수도 있다. 프로이드(S. Freud)와 엘리스(A. Ellis)가 종교가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제석봉, 이성배, 1996). 그러기에 기독교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과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앎' 과 '삶'이 일치되도록 스스로 모델이 되어 부모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려다보니 구성개념(construct)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새로운 구인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들과 전문서적을 통해 신앙생활의 구인들을 찾아본 결과 '종교적 성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 즉,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사회적, 영성적 요인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과학적인 접근은 뒤따르지 않았었다(석창훈, 2001: 5). Malony(1995)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성, 친교성, 개방성, 참여성, 방향성, 자각성, 관계성, 윤리성의 여덟가지 구성개념을 말한바 있는데 석창훈(2001)은 이 척도를 다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한국적 종교생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것 역시 카톨릭교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독교가정의 아동의 신앙생활을 평가해볼 수 있는 척도가 아쉬웠다. 따라서 자유기술된 문장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40문항으로 최종설문을 완성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설문 중 성실한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신앙생활의 구인으로 사회생활영역, 도덕생활영역, 교회생활영역, 생활습관영역, 심리안정영역 이렇게 다섯으로 묶였다. 묶인 구인들을 살펴본 결과 성인기독교교육이론에서 체제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영역을 종교적영역, 사회적영역, 도덕적영역, 지적영역, 심리적영역 이렇게 다섯으로 구분했던 멕켄지(Mckenzie, 1982)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결국 특정한 과목·주제의 Scope와 Sequence를 고려하게 되며 아동의 신앙생활의 요인분석결과에서 보인 다섯가지 영역은 성인기독교교육에서 접근했던 체제적접근과 한가지 영역만 다를 뿐 나머지 네 영역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그렇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이 포함되면서 아동의 발달특성과 상황이 모두 고려된 안정적이고 고유한 영역임을 조심스럽지만 말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이제 신앙생활교육을 교회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가정에서 지도해야할 부모역할에 대해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될 수 있다고 본다. 자녀가 교회에

는 성실히 다녀도 교회학교에서 배운 성경지식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신앙은 영향력이 없는 형식적인 의례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교가 추구하는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신앙생활영역으로 밝혀진 다섯가지 영역 즉, 사회생활, 도덕생활, 종교생활, 심리적 안정, 생활습관 등에서 낮은 점수를 얻는다면 해당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신앙생활을 평가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녀의 신앙생활에서 '앎'과 '삶'이 일치되어 신앙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또한 교회학교 차원에서 교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일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아동인지라 그들의 삶의 다른 영역들을 돌볼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기에 단 한시간 정도 만나는 아동들에게 신앙인격형성을 위해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고민하고 있다. 교사들이 이 도구로서 아동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신앙생활의 각 영역에 따라 교회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다면 아동이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교회학교교육의 질적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끝으로, 분석에 사용된 사례가 219개라서 요인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해보았으나 Cliff(1987)가 '40개 정도의 변인이 있을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피험자는 150이다'했고(양병화, 2002), 변인과 표본수의 비율에 대해 대체로 1: 5면 무난하다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회과학에서 구성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데이터를 축소하여 구인(construct)을 설정하는 요인분석과정은 힘든 만큼 새롭고 보람이 있는 과정임을 문항의 움직임을 보며 알 수 있었다. 이제 본 연구에 이어 신앙생활영역에서 추출된 다섯 요인들을 중심으로 척도의 타당화과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각 요인들이 여러 장면에서 변인들과의 관계와 차이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강승호, 김명숙, 김정환, 남현우, 허 숙 공저(1996). **현대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강필원(2001). 교회활동 참여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강희천(1992). **기독교교육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김대환, 김석우 공저(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학지사.

김문선(1996). 한국개신교회 급성장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사례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용호(1986).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가정교육. 장로교신학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은아(1997).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기질과 형제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남궁진희(2001). 구약에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고찰.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노동철(1999).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노영환(2000). **새 가정운동, 가사조정** 3(2000, 12).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명현정(2001). 기독교가정교육론-루터와 부쉬넬의 사상을 중심으로-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박강수(1999). 부모-자녀관계와 중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병윤(2001). 기독교인의 신앙성숙,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영신(198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수준과 종교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논문.

박영신,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생활만족도,학업성취,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박 종(2002). 기독교가정의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호서대대학원 석사논문.

변상해(2002). 사이버시대 성경적 부부상담을 통한 가정위기 극복방안 연구. 천안대대학원 석사논문.

서영태(2001).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수준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대학원 석사논문.

석창훈(2001). 종교생활척도(RSI) 개발과 종교적 성숙이 스트레스 수준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박사논문.

성창환(2001). 기독교 가정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계명대대학원 석사논문.

손윤경(1998). 크리스천 가정을 위한 교육적 과제. 한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손정기(1999).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생활만족도,학업성취 일탈행동의

관계.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송성자(1989). **가족관계와 치료**. 서울:홍익재.
심상미(1995). 한국기독교가정에 있어서 청소년자녀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논문.
양덕희(1998). 종교인의 신앙생활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양병화(2002). **다변량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학지사.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탐색. 전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원종애(1998). 영아를 위한 '부모역할하기'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총신대교육대학원.
윤동주(2001). 다석 류영모의 '하나님'이해 연구. 한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윤병두(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은준관(1991). **교육신학**. 대한기독교서회.
이규민(2001). 21세기 후기근대 기독교 가정교육을 위한 근본원리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집**, pp. 311-340.
이석영(1998). 호레스 부쉬넬의 가정교육론 연구. 호서대대학원 석사논문.
이소희(1999).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아동발달과 양육**. 서울: CUP출판사.
이소희(2003). 부모-자녀관계와 리더쉽. 대한부모교육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원고.
정성철(2003). 초등학생과 부모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각.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정소영(2000). **상담과 기독교교육**.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부.
정정숙(1994).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도서출판 베다니.
정정숙(2001). 한국기독교교육의 현실과 대응방안. **신학지남, 제68권 4집**(2001년 겨울호).
정화용(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제석봉, 이성배(1996).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 p. 52-53.
조명숙(1997). 신명기의 가정교육관 연구. 호서대연합신대원 석사논문.
진미경(2001). 청소년가출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방안연구. 한신대대학원 석사논문.
채혜연(2000).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카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최순희(1981). 기독교가정과 비기독교가정의 아동의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학술세미나집(2000). 새천년 우리 가정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2000, 6, 29).
기독교신문. 2004, 5, 2일자 5면.
Cliff, N(1987). *Analyzing multivative data*. San Diego:Harcourt Brace Javanovich.
Ellison, C,G.(1998). Introduction to symposium; religion, health,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Gorsuch. R & Aleshire. D.(1974). Christian faith and ethic prejudice ; A review and interpret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3.*

Handbook of Adult Religious Education, ed by Nancy T. Foltz.

Leon Mckenzie(1982). *The Purposes and Scope of Adult Religious Education.* Nancy T. Foltz.

Leon Mckenzie(1991). *Adult Education and Worldview Construction.* Krieger Publishing Company Malabar Florida.

Letty M. Russell(1972). 정웅섭 역.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대한기독교서회.

Lewis Joseph Sherrill(1959). *The Gift of Power.* McMillan Co. N.Y pp. 277-302.

Malony,H.N(1995). *The Psychology of Religion for Ministry.* NewJersey; Paulist Press

Edited by Laurence G. Grimm and Paul R. Yarnold(1995). *Reading and Understanding Multivariate Statistics.* APA Washington, DC.